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삼공불환(三公不換)’은 중국 송나라 시대 시인이자 평생을 포의(布衣, 벼슬하지 않은 선비)로 살았던 대복고(戴復古; 1167~?)의 조대시(釣臺詩)에 나오는 구절이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유유 자적한 생활을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삼정승 같은 높은 벼슬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시는 사실 후한 광무제(光武帝)의 절친한 친구였던 엄자릉(嚴子陵)과의 일화에서 나온 구절이다. 원시(原詩)는 다음과 같다.

“만 가지 일에 아무 생각 없고, 단지 낚시대만 드리우네[萬事無心一釣竿]/ 삼공의 벼슬을 준다고 해도 이 강산과 바꿀소냐[三公不換此江山]/ 평생에 잘못 본 유문숙(유문제의 이름)[平生誤識劉文叔]/ 그대 덕에 쓸데없는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구나[惹起虛名萬世間]”

후한을 세운 광무제(光武帝)는 일개 선비로서 어지러웠던 한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전쟁이 끝나고 천하를 거머쥔 그였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천하백사가 모두 자기를 칭송하고 복종했으나 단 한 사람, 친구였던 엄자릉이 마음에 걸렸다.

함께 성현의 도를 닦을 당시에는 서로를 인정하며 참된 지인(知人)으로 살았었고, 높은 이상과 도를 함께 공부했다. 하지만 권세의 길을 탐한 광무제는 만조백관(滿朝百官)이 모두 아첨을 하는 가운데 친구인 엄자릉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람을 부춘산에 보내 강가에서 낚시하는 엄자릉을 데려 왔다. 엄자릉은 만조백관이 궁궐 뜰 안에 두 줄로 버티 선 가운데를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서, 광무제에게 “아, 문숙(文叔)이 이제 얼마만인가?”라며 이름을 불렀다. 이 광경을 본 신하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광무제가 엄자릉에게 벼슬을 권하자 화가 난 엄자릉은 떠나려 했다. 광무제는 엄자릉을 달래어 예전처럼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 설득해, 한 밤을 같이 보냈다.

그러던 한밤중에 천문지리를 맡은 신하가 허겁지겁 들어와서는 “큰 일입니다. 객성(客星)이 태백(太白, 황제를 상징하는 별)을 침범했습니다.”고 보고해 이를 확인해 보니 엄자릉이 광무제의 배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 것이었다.

이 일화에 감명을 받은 시인 대복고는 엄자릉의 기상을 기리며 조대시를 썼다. 그 이후로 많은 화가들이 이에 감동해 수많은 ‘삼공불환도’를 그리기 시작한다. 조선조에는 단원 김홍도의 삼공불환도가 그의 삼대결작 중 하나로 매우 유명하다.

사실 부춘강에서 낚시하던 엄자릉을 기리는 그림들은 보통 나이던 어부가 물고기 세 마리를 하리춤에 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단원 김홍도는 자신의 작품 제목으로 삼공불환을 썼으나 너른



이명옥의 '어초문답도'

높은 벼슬도 자연 속 삶과 못 바꾼다  
은둔 문사의 고고한 기상을 화폭에

지방의 한 저택에서 지내는 은일문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삼공불환도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은 도화서(圖書署) 화원(畫員) 출신인 이명옥(李明郁)의 어초문답도(漁樵問答圖)이다. 이명옥은 인조(仁祖)때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른 적이 있던 중국 청나라의 맹영광(孟永光)이라는 화가에게 그의 화풍을 지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이 그림도 청(淸)대 초기의 화풍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어부와 나무꾼이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인물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세밀한 감정표현과 노출된 신체부분과 골격, 힘이 넘치면서 부드러운 강한 근육의 표현, 현란한 의복의 준법(綴法) 등은 조선전기(前期)의 그림에서도 흔치 않은 당당한 필세를 보이고 있다. 명리(名利)를 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은둔 문사들을 완벽한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무릇 권세를 따라 다니는 이들은 입신양명(立身揚名)과 이익을 바라나 모두 다 헛된 망상일 따름이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승속(僧俗)을 살피며 바라보니, 수행(修行)하고 근신(勤儉)하는 것이 외에는 보람 있는 일이 없는 듯하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공양

누군가를 위해 마음 쓴다는 것은  
마음 쓴 만큼 내가 행복해짐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을 위함은 곧, 나를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강상 '참도인에게 드림[眞孝道人]'

산봉우리에 떠오르는 달이 본래 면목

西來一寶燭 (서래일보촉)  
何必苦推尋 (하필고추신)  
夜深山雨後 (야심산우후)  
涼月上東岑 (랑월상동잠)

서쪽에서 온 한 보배로운 등불  
어찌 괴롭게 찾을 필요 있을까.  
밤 깊어 산배운 뒤  
서늘한 달 동쪽 봉우리에 뜨네.

침경현변(枕經懸辯; 1616~1684) 스님은 13세에 출가한 후 18세에 대종스님들과 더불어 벌목하던 중 배를 다쳐 거의 죽을 뻔했다. 이에 “천만권의 경전을 읽어도 눈 먼 것을 구하지 못하는 구나. 그러니 부처를 멀리서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곧 부처이다”라고 하고 사교입선(捨教入禪) 했다.

19세 때는 윤선도가 마침 아들을 잃었는데 스님을 보고 아들이 되기를 간청하고 여러 날 목욕했다. 이

를 안 은사 보광 스님이 “불가에서 스승과 사미는 곧 속가의 아버지와 아들이다. 황천으로 보내는 아픔과 속가로 보내는 아픔이 같을까 다를까”하고 스님을 다시 데려 오기도 했다. 임종 시 대비하지 않고 시신을 산야에 두고 짐승들에게 보시했다.

한편, 스님은 17세기에 등장하는 가사를 지은 유일한 분이다. 스님이 지은 '태평곡'에는 불교계에 주어진 역(役)과 가람주구(尙敎誅求)에 견대지 못

하는 불교계의 현실적인 모순을 표현해 놓았다. 그 해결방안으로 사교입선과 간화선을 주장했다.

달마가 서쪽에서 와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한 등불인 진여의 실상을 해결하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다. 이 때문에 머리에 인 불을 끄듯, 아기가 엄마 생각하듯 잠시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조사가 남겨놓은 화두이다. 그러나 스님은 하필 애써 찾아야 할까보냐고 한다. 깊은 밤 비온 뒤 동쪽 산봉우리에 떠오르는 달이 곧 진여의 본래면목이기 때문이라 한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진여의 현현(顯顯) 아님이 없음을 간결하고 소박하게 그려 낸 선미(禪味)가 가득한 시이다.

여름밤, 대웅전 섬돌에 고무신 하나 벗어 깔고 앉아 있는 마음 빈 독두(禿頭), 그 위로 밤바람 타고 온 달빛이 깊숙하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치부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지초, 홍남석화, 초염주, 쯤러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주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기마실

**민속죽염** 23년전통  
초상의 열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입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지용·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입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삼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청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재하다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철 | 금강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철2도 인쇄

현불삼 02)2004-8215